

김정일 사망 때 김정은 만난 이희호 여사...北, 조문단 올까

北, 김대중 前대통령 서거 당시 조문단 파견
이 여사, 김정일 사망 때 상주 김정은 만나
조문단 파견 계기 남북 대화 돌파구 관측도
장금철·김여정·김기남·최룡해 등 가능성
“김정은의 남북대화 의지 판단할 중요 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 힘써왔던 이희호 여사가 지난 10일 밤 타계하면서, 북한의 조문단 파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서거를 애도하는 조전을 보낸 뒤,

김대중평화센터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앞으로 통지문(팩스)을 전송해 조문단 파견을 타진했다.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 6명의 북한 조문단은 사흘 뒤 고려항공 특별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했다.

이들은 빈소에 들른 후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을 만나고 김대중평화센터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다음 날에는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와 만나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2박3일 일정을 소화한 북한 조문단은 돌아가는 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조문단 역할을 하면서 일종의 '대남 특사' 역할도 함께 했던 셈이다.

북한은 이번에도 이 여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문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여사는 생전에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것은 물론이고 김 전 대통령 사후에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힘썼다.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에는 정부에 방북 신청을 해 상주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또 2014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3주기에 북측의 요청으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과 함께 개성공단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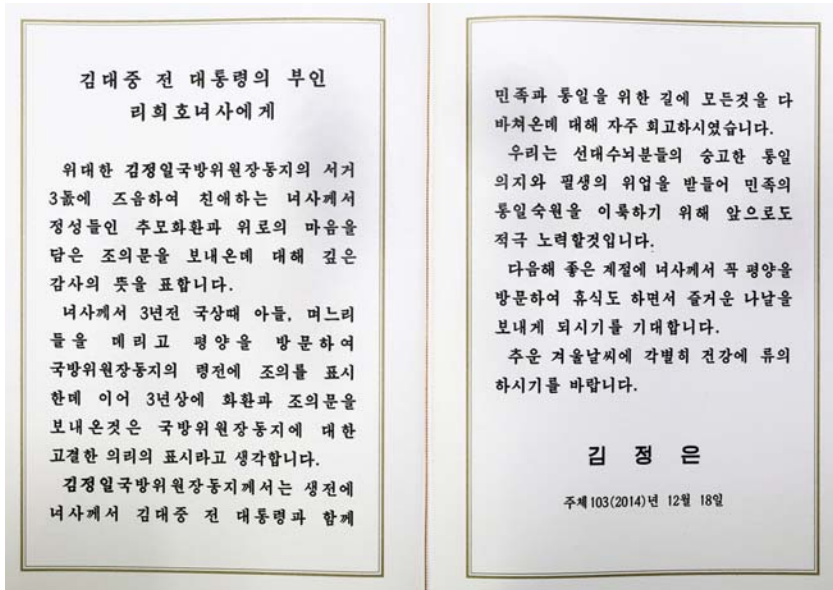
이듬해에도 각계 인사들과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여생을 통일 길에 바치려는 그의 남다른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에 놓인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드는 차원에서 '특사' 형식의 조문단 파견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전 대통령 서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고위급 인사 위주로 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상주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문한 이희호 여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3주기에 김정은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현 국무위원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이희호 여사에 전달한 친서.

문단이 구성될 경우, 남북 간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현재 조문단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총괄한 김명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후임인 장금철 통일부장과 박광호 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의 파견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금철이 방남할 경우 우리 측에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또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경험이 있으며, 그동안 주요 남북대화에 모두 참석했던 김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

장과 2009년 조문단으로 파견됐던 김기남 전 부위원장의 방남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러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조문단 대표로 파견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는 만큼, 조문단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청와대에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의 조문단 파견 여부 그

리고 조문단의 위상 여부가 향후 김위원장의 남북대화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상당 기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고, 국장(國務)으로 임수됐던 2009년 김 전 대통령 서거와는 달리 정례 기간이 짧아 조문단이 주요 인사와의 면담 등을 피하고 조문에만 집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여사의 장례는 사회 각계 대표가 자발적으로 모여 거행하는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뉴스스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여사가 지난 2015년 8월5일 평양의 한 아동병원을 방문, 입원한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故이희호 여사가 남긴 숙제...‘금강산·개성공단’ 물려받은 文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남북 화해협력에 힘써 온 이희호 여사가 10일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유지(遺志)를 문재인 대통령이 물려받게 됐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확대·발전이라는 생전에 못 다 이룬 이 여사의 꿈은 이제 문 대통령 앞에 고스란히 놓이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 여사는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에 힘써 왔다. 햇볕정책과 그 산물인 6·15공동선언 정신을 유지하는 데 여생을 바쳤다.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시 직접 조문하는 등

이명박 정부를 대신해 남북관계의 명맥을 유지해왔다. 2015년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르면서 풍풍 얼어붙은 남북관계 해소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자신을 초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끝내 무산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방북 후 돌아온 이 여사를 예방한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여사는 당시 문 대표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면서 "만났다면 양쪽에서 6·15공동선언을 지키고 금강산 관광

과 개성공단을 더 발전시키자고(제안)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표는 이 여사의 손을 꼭 쥐면서 "아쉽다. 여사가 어렵게 방북했고, 정부가 그 기회를 활용하면 좋을텐데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맞대응으로 형성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었다.

이듬해인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을 명분으로 결국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개성공단을 확대·발전시키고 싶다면 이 여사의 뜻과 달리 남북관계는 정면대의 길

로 접어들었다.

햇볕정책 계승을 선언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만에 살얼음판 같았던 남북관계를 10년 전 상황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전시킨 '관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을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마무리되면서 북미 대화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였다.

이 여사가 남기고 간 숙제를 물려받은 문 대통령이 이달 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가동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